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2019년 12월 3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 3.(화)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12. 2.(월)	담당부서	에너지혁신정책과 원전수출진흥과 구주통상과
담당과장	정종영 과장(044-203-5320) 김 진 과장(044-203-5330) 송주호 과장(044-206-5660)	담 당 자	신승일 사무관(044-203-5124) 이수홍 사무관(044-203-5333) 김수진 서기관(044-203-5661)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폴란드 · 프랑스 방문

- 한 · 폴란드 경제협력 방안 협의 및 신규 원전 수주 지원 활동 -

-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 참석 -

□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12.3(화)~6(금)간 **폴란드를 방문하여 경제협력 강화 및 원전 수주 지원 활동**을 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19 IEA 각료이사회에 참석함**

1 폴란드: 경제협력 확대 및 원전 수주 지원 활동

□ **정승일 차관**은 12.3(화)~4(목)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개발부 예드비가 에밀라비치(Jadwiga Emilewicz) 장관, 총리실 피오트르 나임스키(Piortr Naimski) 에너지인프라 특명대사**를 만나 **양국간 산업·원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 **정 차관과 개발부 예드비가 에밀라비치 장관**은 최근 두 차례('18.2, '19.10) 개최된 정상회담과 연계하여 경제협력 대상을 교역과 투자 증진뿐 아니라 **인프라·에너지·방산 등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 정 차관은 특히, 폴란드에서 추진중인 **신공항 건설**, 자주포에 이은 **방산협력 확대, 원전분야 협력 등**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의지**를 설명

□ 정 차관은 **피오트르 나임스키 에너지인프라 특사**를 만나, 양국이 **원전 분야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폴란드의 신규 원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

* 한수원-EPK(폴 전력회사)간 원전·신재생 협력 MOU 체결 및 한-폴 원전로드쇼 개최('18.9), 한전원자력대학원대학교에 폴란드 학생 재학·졸업 등

** 폴란드 에너지부는 '43년까지 6기 규모 원전도입 계획 언급('18.11월)

○ 한편, **원전수출협회**는 **12월5일 바르샤바**에서 **한-폴 원전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기업차원의 원전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 폴란드 원전기업인 대상으로 한국 해외원전사업 현황, 한국형 원전소개, 폴란드와 협력방안, 한국 원전기업 소개 등 발표 예정(원전수출협회 주최, 한수원 후원)

2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 참석

□ 정 차관은 12.5(목)~6(금)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19 국제에너지기구(이하 IEA) 각료 이사회(2년마다 개최)에 참석하여 **'에너지의 미래 구축(Building the future of Energy)' 을 위한 협력 방안 도출**

< 국제에너지기구(IEA) 개요 >

○ **설립목적** : 제1차 석유파동 직후 석유공급위기에 공동대응을 위해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설립된 에너지협력기구('74.11월)

○ **회원국** : 한국('02년 가입),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30개국

○ **주요 활동** : 석유비축 등 석유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에너지 시장정보 제공, 에너지기술 연구협력, OECD 등 타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 IEA는 **매 2년마다 30개 회원국*의 장·차관급 인사**들과 주요 에너지 기업 CEO들이 참석하는 **각료이사회를 열어 전 세계 에너지 현안을 논의**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스웨덴 등

○ 올해는 **'에너지의 미래 구축'**이라는 주제로 **청정에너지 투자확대, 에너지전환에서 디지털화의 중요성, 에너지 안보 확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주요 과제들을 논의

□ 정 차관은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에너지산업을 **국가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에너지안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

* 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40년까지 30~35%로 확대
** 에너지효율 혁신전략('19.8): '30년 최종에너지 소비 29.6백만TOE 감축(BAU 대비 14.4%)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40년 수소차 290만대, 충전소 1,200기, 연료전지 10.1GW 보급 등

○ 특히, 한국의 **강점인 IT**를 기반으로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에너지분야에 적용**한 가상발전소(VPP) 및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소규모 국민DR** 시장 확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조성 등 **다양한 신서비스와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례를 소개

○ 또한, 석유, 가스, 전력 등 에너지 수급과 시장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시 지역·다자 차원의 국제공조 체계 정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한편, 정 차관은 **IEA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양자 협의**를 갖고 **에너지관련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김수진 서기관(☎ 044-203-5661), 에너지혁신정책과 신승일 사무관(☎ 044-203-5124) 또는 원전수출진흥과 이수홍 사무관(☎ 044-203-533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